



### 조선시대 最古 선묘불화 공개

정우택 교수 '가정 11년명...'

제작연대가 밝혀진 조선 선묘 불화(線描佛畵) 중 가장 앞선 시기의 불화가 공개됐다.

정우택 교수(동국대박물관장)는 4월 21일 열린 동국미술사학회 제39회 월례발표회에서 '가정(嘉靖) 11년명 금선묘(金線描) 아마타팔대보살도(阿彌陀八大菩薩圖)'를 공개했다(사진).

정 교수가 최근 일본의 한 사찰에서 발견한 이 불화는 아래쪽에 기록된 화기(畵記)에 제작연대가 '가정 11년' 즉 1532년이라고 밝혀져 있다. 여수령 기자

4월 24일 고려대학교의료원 구로병원 병실마다 한 송이 연꽃이 전해졌다. 구로병원 법당 개원을 축하하는 의미로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종이를 맡아 만든 연꽃이다.

종이 연꽃을 손에 쥔 환자와 어린이, 봉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자 구로병원 법당 개원법회가 시작됐다. 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과 월호 스님(쌍계사), 보림 스님(안산 보문선원 주지), 고려대학교의료원불자회 김우주(갑업내과) 회장,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변관수 부원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해 법당 개원을 축하했다.

고려대학교의료원 법당이 마련된 것은 지난해 12월 개원한 안산병원에 이어 두 번째. 안암병원 법당도 오는 6월 경 개원할 예정이다. 병원법당 개원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지현 스님은 고대의료원에서 12년째 호스피스 활동을 하며 법당 개원을 추진해 왔다. '환자들이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를 만들어주자'는 일념으로 시작한 불사다.

법당으로 사용할 공간을 내 주지 않는 병원측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한편으로 불자직원을 수소문해 불자회 창립을 도왔다. 이후 불자회

## 편안한 법당은 또 하나의 치료공간

### 고려대 구로병원 개원...각종 강좌 계획



4월 24일 개원한 고려대 구로병원 법당에서 지도법사 지현 스님(왼쪽에서 세 번째)과 김우주 고대의료원 불자회장(맨 오른쪽),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앞찬 법당 운영을 다짐했다.

회원들과 함께 의료봉사도 하고 경전공부도 진행했다.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한 끝에 병원으로부터 법당 개원을 허락받았다. 하지만 재정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았다. 인연 닿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후원금을 받았고, 병원법당의 필요성을 알리

려 동분서주했다.

지현 스님은 "지난해 연말 현대 불교신문에 기사가 난 이후 구로병원 법당 개원에 필요한 불상을 모실 수 있게 돼 걱정을 덜었다"며 "더욱 정진해 안암병원의 법당도 여법하게 개원할 수 있도록 하

겠다"고 말했다.

"환자들을 만나보면 명상이나 참선 등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수행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편하게 참선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병원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병원법당을 개원하고 유지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 종단에서 병원법당을 운영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갖춰지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어렵게 개원한 법당이니만큼, 향후 운영 계획도 알차다. 매주 환자를 위한 정기법회를 여는 것은 물론, 경전과 참선강좌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병원불자회의 봉사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김우주 회장은 "비록 법당은 넓지 않지만, 고대의료원 불자회 봉사활동의 폭과 깊이는 그 어느 단체에 못지않다"며 "앞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봉사활동을 더 많이 펼쳐 나가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고대의료원 법당 개원이 촉매제가 돼 더 많은 병원에 부처님이 모셔질 수 있게 되길 바란다"는 지현 스님은 열 틈도 없이 안암병원 개원 준비를 시작했다. 고대의료원 법당 개원은 스님이 서원한 불사(佛事)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이다. 여수령 기자



### 올해도 동자승 오셨네

대구 동화사주지 허은는 4월 23일 동자승 단기출가 식발식을 가졌다. 하동훈(금강유치원군 등 8명의 어린이들은 식발을 하고 5계를 수지했다. 동자승들은 봉축기간 동안 각종 행사에 참여하며 '봉축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된다. 사진=순법천 대구지사장

## "권력과 돈으로 위대한 질주"

### 수경 스님, '불교명론' 범호서 '공개된 비밀' 언급

수경 스님(서울 회계사 주지·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이 조계종의 '공개된 비밀'을 끄집어냈다. 스님은 <불교명론> 범호에 '조계종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지금 조계종단은 '권력'과 '돈'이라는 두 바퀴의 수레를 타고 위대한 질주를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부대중 참여한 '자정기구' 세우야

종단이 잘못 굴러가도, 승풍이 무너져도, 이를 경계하는 종단 어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산중총회나 대중공사, 임회(林會)와 같은 전통이 상당수 단절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경 스님은 "원로스님과 재가불자를 포함한, 그야말로 사부대중이 참여한 자정기구를 세워야 사찰 재정 투명성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립 율원' 세워 승풍 바로잡아야

스님은 또 "종립 율원"을 세워 승풍을 바로잡자"고 요구한다. 수행자로서의 위의를 수행자 '개인'에게 맡겨 놓으면 집단 율리의 의식의 구조화가 이뤄지지 않는다. 계체(戒體)의 힘이 필요한 것이다. 또 계율을 독려하는 기능도 있다.

△'종립 염불원' 설립을 제안한다

간화선 과잉 분위기는 깨닫지만 하면 누구나 부처라는 '막연한 오만'과 깨닫지 못하는 한 누구나 중생이라는 '오만한 평등주의'를 낳았다. 대부분 불자들의 신앙 행위가 간화선 위주라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종단 차원의 배려는 없다.

수경 스님은 '종립 염불원' 설립을 제안한다. 염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참선 이외의 많은 수행 방편에 대한 이론과 실제에 대해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총무원 집행부, 세사와 소통해야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는 세상을 향해 눈과 귀를 꼭 닫고 있는 것 같다. 총무원은 최우선 과제로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원, 교구본사 주지 자리가 돈에 의해 좌우되는 구조부터 해결할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이를 보장할 구체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남동우 기자

## 보덕암·묘길상 참배길 열렸다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내금강 성지순례 6월초부터 시행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이 올 6월초부터 내금강 성지순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는 금강산 성지순례 운영을 맡고 있는 현대아시아 북극과 내금강 관광에 대한 최종 합의를 마치고 올 6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하기로 함에 따라 금강산 불교성지순례 상품의 독립적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문화사업단도 6월부터 본격적인 내금강 성지순례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내금강 성지순례는 2박 3일 일정으로 150명씩 출발해 1일차 신계사 참배, 2일차 내금강 성지순례, 3일차 구룡연과 만물상 중 1개 코스를 선택하는 일정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월·수·금요일 출발하는 현대아시아의 사업과는 달리 화·목·일요일에 출발하는 별도의 일정으로 불자들만 참가한다.

님들의 부도와 비석이 남아있는 백화암터 등 많은 불교성지와 계곡미로 유명한 민곡 8담 등이 포함돼 불교문화유적과 내금강의 절경을 동시에 즐기면서 감상할 수 있게 구성됐다. 문화사업단은 우선 사찰 단위를 성지순례단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성지순례 신청 접수 (02)2011-1859-60. 남동우 기자

### '짱' 들 다 모여라!

### 파라미터페스티벌 참가자 모집

(사)파라미터청소년협회(회장 도후)는 5월 20일 열리는 제7회 파라미터 음악놀이 페스티벌 행사에서 끼를 마음껏 발산할 청소년 참가자를 모집한다.

연등축제 기간 중 서울의 중심가인 종각역 우정국로 야외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청소년을 위한 무대에는 중·고등학교 개인 및 그룹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02)723-6165 김원우 기자

### 전등사 외국인근로자잔치

가정의 달을 맞아 외국인 근로자들과 사철이 한데 어울려 잔치를 벌인다.

강화 전등사주지 장윤는 5월 6일 제2회 외국인 근로자 초청 잔치를 연다. 스리랑카, 미얀마, 네팔, 태국, 몽골 등지에서 온 400여명의 근로자들이 삼량상 일대 관광과 인경 체험, 단주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과 풍물 락밴드 공연 등을 관람하게 된다. 동국대 일산병원 의료팀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무료 진료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임연태 기자

### '연등축제의 노래2' CD 나와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집행위원장 현문·조계종 총무부장)가 '연등축제의 노래 2'를 CD로 제작해 보급한다.

이번 CD에는 대표곡이었던 '오늘은 좋은날' '길 떠나자' 등 17곡의 노래가 수록됐다. 또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창작곡 '잔치 열었네' '좋은 오늘이야' 등이 포함돼 있다. 남동우 기자

## 사찰 이종규제 풀릴까?...조계종·정각회 6월 11일 공청회

사찰 불사 시 이종규제 논란이 일고 있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대규모 공청회가 열린다. 공청회는 조계종 중앙종회와 국회 정각회가 공동 주최한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4월 24일 가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제완화를 위한 공청회'를 6월 1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 회관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공청회 추진을 위해 황적 스님(불교신문사 사장)을 위원장으로, 장적 스님(중앙종회 재정분과위원장), 중앙종회 사무처장, 총무부장,

재무부장, 기획실장을 실무위원으로 하는 추진실무위원회를 구성했다.

공청회는 '전통문화 계승의 의무와 국가의 역할' '개발제한 구역 지정에 대한 전통사찰의 피해 현황' '개발제한 구역 제도의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열린다. 남동우 기자

연출\_안병길 / 기획\_송옥 / 감독\_가산

## "선인들의 뜻을 기려 내고장 맑고, 향기롭게"

# 제3회 경기북부사암음악예술제

## 초대합니다

30여년 전부터 찬불가를 통해 불음홍포를 해오던 경기북부지역의 불교연합합창단들이 2005년 제1회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2006년 2회는 '고양어울림극장'에서 '경기북부불교음악제'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2007년 '제3회 경기북부사암음악예술제'를 경기북부불교사암연합회 주최로 남양주·구리시 불교사암연합회의 주관과 경기문화재단과 남양주시 등의 후원으로 경기북부 모든 불자와 도민이 동참하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개최합니다.

본 음악예술제는 경기북부지역의 8개 연합합창단과 예술인들이 참가하여 불교전통문화와 현대음악예술이 어우러지는 이번 음악예술제에 초대하오니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불기2551(2007)년 5월 11일

제3회 경기북부사암음악예술제 봉행위원장 철 안  
집행위원장 금 담

일시 \_ 불기2551(2007)년 5월11일(금)  
봉축법요식 pm 6:00  
음악예술제 pm 7:30

장소 \_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주최 \_ 경기북부불교사암연합회

주관 \_ 남양주·구리시불교사암연합회

제1부 봉축법요식 pm 6:00 ~ 7:00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야외공연장

제2부 음악예술제 pm 7:30 ~ 9:30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

제3부 행운권추첨·뒷풀이 pm 9:30 ~ 10:00

문의 031-558-0108

남양주 백봉산 묘역사 광각출중사탑

동참하시는 분들께 푸짐한 행운도 함께 나눠드립니다.

지펠 냉장고 홈바형684L 고급형 1대  
김치냉장고 206L 고급형 1대·29인치 평면TV 1대  
드럼세탁기10kg 1대·그릴 가스레인지 5대  
한경희 스틸청소기 10대·전자레인지 5대  
농협상품권 심만원권 6명·오만원권 10명  
파티쿠커 30대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지하철 \_ 중앙선 도농역 2번 출구로 나와 건너편에서 체육문화센터 순환버스를 이용. 버 스 \_ 7호선 상봉역 2번 출구로 나와 버스 30, 165, 166, 1330, 3330 등을 타고 남양주경찰서에서 하차하신후 바로 아래에 있는 농협앞에서 체육문화센터 순환버스가 매시간마다 25분, 45분 2회 출발.

40명이상 참석하고자 하시는 단체는 미리 연락 주시면 차량지원을 해드립니다.

합 찬 \_ 고양시 불교사암연합회 / 동두천시 불교사암연합회 / 양주시 불교사암연합회 / 의정부시 불교사암연합회 / 파주시 불교사암연합회 / 포천시 불교사암연합회 / 가평군 불교사암연합회 / 양평군 불교사암연합회

후 원 \_ 경기문화재단 남양주시 (사)전수천안 자원봉사단 현대불교신문 법보신문 불교TV BBS 불교방송 佛敎新聞 (사)삼보불교음악협회

행사문의 \_ 남양주·구리시 불교사암연합회 전화 031-558-0108